

민족대 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전하는 쑥섬



쑥이 많고 쑥향이며 물러있다고 하여 그 이름도 쑥섬.
만경봉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대동강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는 이 쑥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계각층 애국적인사들과 우리 인민들을 민족단합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여있다. 주체37(1948)년 5월 2일 쑥섬에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북조선 정상,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력사적인 회합에서는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결정된 문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협의되었다.

그날 백두산발을 주름잡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사건을 안아오신 함일의 전설적영웅을 몸가까이 모신 남북조선대표들은 감격과 기쁨이 그치지 않았던 어려움과 긴장감도 풀지 못하고있었다.

남조선대표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일성별장사언어 왜놈들이 무서워하지 한민족,

한동포들이야 왜 어쩔겠는가, 우리 더운데 웃옷을 벗고 담배도 피우면서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며 손수 대표들에게 담배도 권하시고 불도 붙여주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겸허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남조선대표들은 수령님께 가까이로 서로 다가앉아 정을 나누었으며 그리하여 협의회는 한자정도 같은 단란한 분위기를 띠어 진행되게 되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개괄하신 후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의 소망과 의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명철한 해답을 주시면서 당당한 활동 방향과 대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통치례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정세의 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면서 나라의 통일독립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묘수를 계시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남조선 대표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서로의 의사가 충분히 소통되

고 함의에 도달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방략에 대하여 명백히 강조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주요한 결론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저지관산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벌릴때 대한 문제, 망국적인 단독선거강행에 대처하여 북조선에서는 직접 선거로, 남조선에서는 비합법적인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전조선적인 최고립법기관과 중앙정부를 세울 데 대한 문제, 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주의주장, 리해관계에 앞서 민족앞에 단결은 분렬의 위기를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통일의 기치밑에 합작단결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실행하는 민족적정당성을 귀중히 여기고 너그러게 완전히 합작 단결하는것을 의무로, 같은 피를

을 타고난 조선사람으로서의 의리로 여기고있다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한 망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잡을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드넓은 도량, 만민을 뜨겁게 품어안는 포용력이 옹골찬 언명하시었다.

당시 김구선생은 감동된 어조로 공산주의에 대해 편협하고 용납했던 이 늙은것들을 그처럼 믿어주시고 신변안전까지 걱정해주시니 우리들은 이제 죽어 진도된 들 여한이 없을것이라고, 높들의 박해와 위협이 아무리 모질다 해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굴함없이 싸워 기어 리공화국을 실현하겠다고 수령님께 말씀드렸다.

그의 말에 남조선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찬동을 표시하시었다.

사실 몇달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 경계심을 가지고있던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그들이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와 위구심을 완전히 가지고 리공화국과 통일의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었는것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쑥섬협의회는 조국과 민족이 있어야 당파도 있고 주의주장이 있을수 있다는 철리를 밝혀준 뜻깊은 모임이었다. 또한 서로 다른 정견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애국애족의 리념밑에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면 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고 나라의 통일성업에도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력사적인 모임이었다.

뜻깊은 남북조선 정상, 사회단체 지도급인사들의 협의회가 있었던 날은 쑥섬은 70여년이 지난 오늘도 그날의 사적물들을 고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합정신을 길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남조선에서 윤석열과 그 패당이 미일상선의 환심을 사보려고 갖은 비굴한 추태를 다 부리고있다. 윤석열패당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서울에 날아든 미 국무실무차들과 회담일정 및 의제 등을 협의하고 《력대 대통령들중 취임후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이 될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미에 중요한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한미동맹이 한치의 빈틈도 없는 강력하고 변경할수 없는 동맹으로 발전할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떠들었다.

한편 윤석열은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향후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운운한 《친서》라는것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자기의 취임식에 일본수상이 참가해 줄것을 구걸하였다.

윤석열패당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에 매달려 어려운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나쁜 추태이다.

미국이 지난 70여년동안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앙을 들춰왔다는것은 세상에서 다 아는 사실이다.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쏟아오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일본 역시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앙을 들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나 배상은 고사하고 일본군정노예비리와 강제징용탄핵 등 치명적인 피해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면서 공권주의부활과 체질개선에 미처 달려서는 친년속적이다.

이러한 외세와 입을 맞추며 돌아치는 윤석열패당의 행태는 을사조약도 쟁쟁함을 극한 사대매국망동이며 온 겨레의 매일

결산의지에 대한 우용이고 모독 인것이다.

이번에 일본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남조선선 일본전범기업자신의 현금화조치철폐, 일본군성노예피해자배상과 관련한 남조선법원의 판결보류, 《한일위안부합의》의 리행을 강행하면서 오만하게 높아졌으나 윤석열패당은 입도 병긱하지 못하고 비뚤은 수탈모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보는바와 같이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은 《한미동맹》강화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떠돌며 미일상선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고있다.

력대 남조선집권자치고 미국을 하대비처럼 섬기고 일본에 아부굴종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은 처럼 취임전부터 친미친일사대에 환장하여 상선의 발바닥을 밟느라 정신없이 헤뎀버리는 썰매같은 추물은 보자 치우이다. 친미친일근성이 뼈속까지 썩은 회세의 사대매국노들이 조선반도에 어떤 재앙을 몰아오는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나쁜 추태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윤석열패당의 친미친일사대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북외교정책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윤석열의 대북강경정책은 정세를 한층 격화시키고 조선반도를 국제적갈등과 대립의 최전방으로 만들게 될것이다》, 《윤석열주변에는 온통 동족대결분자, 친일, 친미분자밖에 없다》고 비리하는 과거죄악을 전면 부정하면서 공권주의부활과 체질개선에 미처 달려서는 친년속적이다.

이러한 외세와 입을 맞추며 돌아치는 윤석열패당의 행태는 을사조약도 쟁쟁함을 극한 사대매국망동이며 온 겨레의 매일

강영진

통일교실 민족대 단결사상의 본질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영개혁의 기본단위이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로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민족구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떼서 없이 결합되어있다. 민족의 운영개혁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가고 싶지 않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독립적인 민족대단결의 사상이다.

그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고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광범적인 단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민족성원모두를 하나로 굳게 묶어줄수 있는 가장 율바는 민족대단결의 근본원칙을 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그런데 외세의 의하여 지금 우리 민족은 70여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다. 하지만 분렬은 일시적인 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주요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적 전제조건이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민족대단결의 대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허 루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애국의 길에 (2)

조선건설사업에 떨쳐나섰고 곳곳마다에서 건국의 마치고 드높이 울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의 비호밑에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변신하여 득실거리고있었다. 그러가 하면 각이한 정치세력들은 저지마다 주의 주장을 내놓고 권력암투를 벌리고있고 인민들은 해방전과 다름없는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있었다.

하지만 이미 국민당군대에서 부부할 때 반공교육과정을 거친 최덕신선생은 북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길로 운명의 키를 돌리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약속해주는 해방의 첫 기쁨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민족분렬의 굶을 더 깊어지고 통일을 멀리하는 운명환신의 길이었음을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었다.

최덕신선생이 그처럼 큰 포부를 안고 찾아온 남조선에서 미군이 주인노릇을 하고있었다.

남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그를 맞이한것은 항구에 주둔한 미군이었다.

희한감이 빠져 그구의 밤거리로 거는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중국에 있을 때 본 백야더의 포고문이 떠올랐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 선이남의 조선평토를 점령한다. 본관은 태평양면면 미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이에 북위 38° 선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정을 포고한다.

...》

최덕신선생은 미군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며 지배자로서 군림하고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최덕신선생은 괴로운 날과 날을 보냈다.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남조선에서의 군정실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어느 나라도 북을 입고 어디에서 싸우든지간에 일제와 싸우면 그것이 조선독립에 기여하는 길ियो 애국의 길이라 고 자신을 위안해온 그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된 조선이 쏘련식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로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소련(이전)의 가맹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이른바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의 언행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범죄적인 5. 10 단선을 반대배격하여

4월남북련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나온 《남조선단선반대전국투쟁위원회》의 지도밑에 북과 남에서는 5.10단선을 반대배격하는 거족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남조선인민들은 5.10단선을 분쇄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을 준비하였다.

남조선 각지에는 《단선반대전국투쟁위원회》들이 조직되고 노동자들은 《남조선단선반대투쟁총파업위원회》를 내었다.

1948년 5월 8일 《남조선단선반대투쟁총파업위원회》의 지도밑에 노동자들은 《단선단결을 반대한다!》, 《단결은 인민위원회의!》 등 정견과 통일투쟁을 외치는 구호를 들고 파업과 시위에 나서었다. 총파업으로 남조선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은 문을 닫고 철도와 통신연락은 거의 끊어졌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지에서 특히 치렬하게 벌어졌다.

총파업의 불길이 타오르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시민, 하급공무원, 종교인 등 각계층 인민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 동맹휴학, 해발물리기, 선거장 및 선거사무소습격 등 다양한 형태

로 선거를 관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었다.

그러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선거장들과 경찰관파출소, 판공서 등이 군중의 습격에 의하여 련이어 파괴소각되었다.

경상남도 거창군안의 애국적인인민들은 광복창고를 들이쳐서 식량을 빼앗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단선결사반대를 결의하는 군중대회를 진행하였다.

전라남도 령암군 도포면 봉호리에서는 청년들이 결사대를 조직하고 5월 10일 선거에 강제동원하려고 달려는 악질레뵈분자들을 처단하였으며 무안군 일로면 농민들은 자체로 무장을 갖추고 립후보자와 악질반동들을 처단하였다.

단독선거반대투쟁에는 청년학생들도 적극 합류하였다. 서울시학생들이 5월 8일 모든 남조선학생들에게 《매국투표 거부하라!》, 《미군 즉시 철거하라!》, 《남북통일정부 수립 반대!》 등의 구호를 제시한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어 각지에서 동맹휴학하고 시위투쟁 등이 벌어졌다.

대중적항쟁은 《국방경비대》에도 충격적영향을 주어

468 번째의 《화요일행동》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화요일행동》 참가자들은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삼한의 무더위속에서도 거리에 서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 학교무상화》제도적용과 보조금지급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화요일행동》에 참가하여 발원한 일본인민들은 《일본행정의 조선학교에 대한 불합리적인 차별은 결코 용납 못한다》는 일념을 안고 《화요일행동》에 참가하여왔다고 하면서 《화요일행동》에 참가하여왔다고 하면

통일을 불러

최덕신선생

가득이나 반공사상이 머리에 베겨있던 그에게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것이 곧 애국애족하는 길이라는 관념이 꿈틀거렸다.

그러하여 선생은 미군이 입혀주는 군복을 입게 되서 활약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일본군이나 위만군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자들에게는 본래의 직급을 그대로 주면서 유독 국민당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에게만 차별을 두었다.

그러나 선생은 이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가슴에 묻어둔 채 방공의 회오리속에 깊숙이 머물렀었다. 점차 미국의 심인을 얻어 육군사관학교

에서 부부할 때 반공교육과정을 거친 최덕신선생은 북으로가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길로 운명의 키를 돌리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약속해주는 해방의 첫 기쁨에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민족분렬의 굶을 더 깊어지고 통일을 멀리하는 운명환신의 길이었음을 그는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었다.

최덕신선생이 그처럼 큰 포부를 안고 찾아온 남조선에서 미군이 주인노릇을 하고있었다.

남조선에 첫발을 내디딘 그를 맞이한것은 항구에 주둔한 미군이었다.

희한감이 빠져 그구의 밤거리로 거는 그의 눈앞에는 불현듯 중국에 있을 때 본 백야더의 포고문이 떠올랐다.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 선이남의 조선평토를 점령한다. 본관은 태평양면면 미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이에 북위 38° 선이남의 조선 및 조선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정을 포고한다.

...》

최덕신선생은 미군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며 지배자로서 군림하고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최덕신선생은 괴로운 날과 날을 보냈다.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남조선에서의 군정실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나라없던 지난날에는 어느 나라도 북을 입고 어디에서 싸우든지간에 일제와 싸우면 그것이 조선독립에 기여하는 길이라 고 자신을 위안해온 그였다.

그러던 그는 해방된 조선이 쏘련식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로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소련(이전)의 가맹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이른바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의 언행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

본사기자 강류성